

# 안드레 퍼트먼의 디자인에 나타난 실내공간 요소의 오브제화에 관한 연구

Characteristics of Interior Elements as Objets in Andree Putman's Design

심은주\* / Shim, Eun-Ju  
권영길\*\* / Kwon, Young-Gull

## Abstract

Andree Putman is one of the few French female interior designers who has successfully extended her design territory beyond France into a more global context. Unlike other interior designers Putman has a very unique and eclectic background. She has studied music, worked as a journalist, talented in redeveloping designs that were unknown at that time such as design's of Eileen Gray, Mallet-Stevenson, and many more. Starting her career as an interior designer we can see her designs not only in France but also in many other countries such as America, Japan, and Germany. However her name is not that familiar to the designers in Korea. Therefore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the introduction and understanding of Putman's designs in regard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ior space and objets that have made her designs so called 'Putman Style'. In order to accomplish the objective the researcher first studied means and use of ojects in interior space and next examined characteristics of Putman's designs including lighting fixtures, products, furnitures, and interior designs. Finally, by using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four categories (esthetics of emptiness, repetition of geometric forms, contrast in style, and focus with lighting) of design methods are revealed as the characteristics of interior elements as objects in Andree Putman's interior designs.

키워드 : 여성디자이너, 안드레 퍼트먼, 오브제

Keywords : Female designer, Andree Putman, Objet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923년 최초로 실내디자인 전공이 뉴욕 스크올 오브 아트 앤 디자인에 창설된 이후 많은 여성들은 실내장식가에서 출발하여 디자이너로서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또 활발한 활동을 보여 왔다. 이에 전통적으로 실내디자인학은 다른 학문 영역에 비해 여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현상은 실무 현장에도 연결되어 여성들의 사회 참여의 기회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건축가들이나 실내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남성 디자이너들임을 감안할 때 이제라도 보다 많은 여성 디자이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안드레 퍼트먼(Andree Putman, 이하 '퍼트먼'으로 통칭)은

필립 스타크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실내디자이너이자 몇 안 되는 스타급의 세계적 여성 디자이너로서 제품디자인부터 실내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영역 전반에 걸쳐 폭 넓은 활동을 보이며 미국 시카고 미술대학과 파슨즈 대학에서 명예박사를 수여받는 등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왔으나 국내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편이라 하겠다. 존 파일(John Pile)은 그의 저서 '실내디자인사(A History of Interior Design)'에서 퍼트먼을 그 어느 디자인 양식(Style)에도 속하지 않은 '개인주의 스타일리스트(individual stylist)'로 구분하여 서술하고<sup>1)</sup> 있을만큼 퍼트먼은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 세계를 추구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디자인을 세계화하였다는 면에서 실내디자인계의 '코코 샤넬'이라 칭송받는 퍼트먼의 디자인을 분석하여 그녀만이 소유하고 있는 고유한 디자인 경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그녀의 디자인에 나타나는 공간 구성 요소의 오브제화 경향의 특성을 분석하여 실내공간 디자인 방법론의

\* 정희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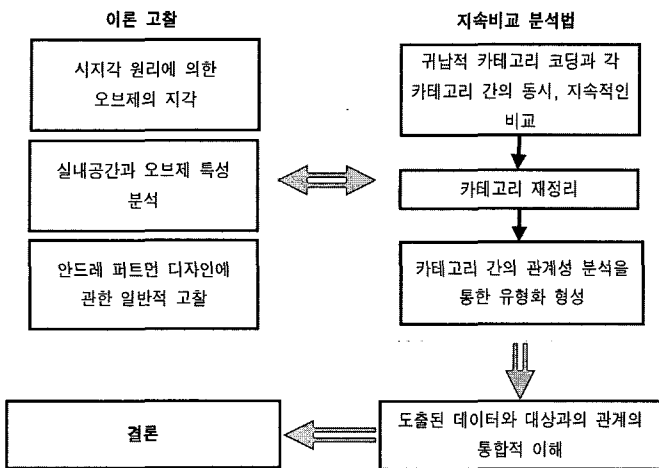
\*\* 정희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공학박사

1) John Pile, A History of Interior Design, Calmann & King, 2000, p.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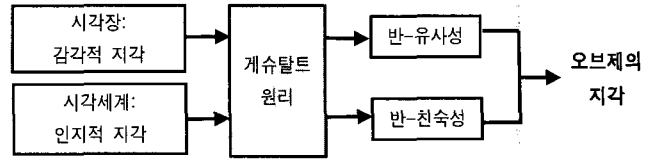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설정하고 증명하는 과정의 일반적인 연역적 연구법과 달리 정보를 분석하는 귀납적 추론의 과정을 거쳐 분석하는 지속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문헌고찰과 함께 병행하여 진행시키고자 하였다.<sup>2)</sup>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실내공간 요소의 오브제화 경향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첫째, 실내공간에 있어서 시지각 원리에 입각한 배경과 사물과의 관점에 의한 공간 구성요소를 문헌 고찰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둘째, 실내 디자인사에 따른 오브제화 특성을 고찰하여 오브제와 실내공간과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퍼트먼 디자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이해하고자 그의 성장 배경과 함께 조명 및 제품 디자인, 가구 디자인, 그리고 실내디자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선행 고찰을 배경으로 퍼트먼이 본격적으로 실내디자인으로서 작업을 시작한 1980년대 이후의 공간 디자인 사례들을 분류, 그룹화하는 작업을 통해 그의 디자인에 나타나는 오브제화 경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그림 2> 시지각 원리와 오브제의 지각

시각적 강조를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디자인 방법으로 정착되었다. 건축 공간에서의 오브제는 인간의 시지각 세계 구축과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에드워드 홀(Edward Hall)에 의하면 인간의 시지각은 크게 시각 장(visual field)과 시각 세계(visual world)로 구분되어 진다. 시각 장은 인간의 눈에 맺혀지는 망막 상(retinal image) 그대로의 정보(information)을 의미하며 시각 세계란 지각 과정을 통한 시각 장의 교정으로 결국 정보를 데이터(data)화하는 과정을 수반한다.<sup>4)</sup> 예를 들어 우리는 시각 장을 통해 기하학적인 사각형 구조물을 지각하지만 그 물체를 '의자'로 또는 '책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시각 세계에 근거한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계슈탈트 심리학은 이러한 시각장과 시각 세계의 인식 관계를 분석하여 우리가 지각하는 물체는 항상 그 배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인지된다는 기본 개념을 담고 있는데 오브제의 인식과정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계슈탈트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전체성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별성의 강조가 공간 속에서의 오브제화의 방법으로 차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배경으로부터 사물을 시각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시각 장을 통해 비슷한 성향을 지닌 물체들을 하나의 틀로서 인식하고자 하는 유사성의 원리를 역이용하여 배경과 다른 성향의 물체를 강조함으로써 물체의 오브제화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랭크 게리의 건축물들의 경우, 도시의 맥락과 연관되지 않은 독자적인 조형성을 구축하여 배경과 물체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분리하는 건축물의 오브제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겠다. 두 번째 방법은 보다 경험적인 인지의 과정이 수반되는 방법으로써 시각 세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물들을 관습적으로 익숙한 물체로 인식하고자 하는 친숙성의 원리를 역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변기를 꽃을 꽂는 화병의 기능으로 사용하거나 공간 안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체를 놓는 등 원래의 기능과 스케일의 변환을 통한 구성 요소의 오브제화를 이룰 수도 있다.

## 2.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오브제의 특성

본 장에서는 퍼트먼 디자인의 오브제화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 그 동안 오브제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온 사례들을 정리하여 실내디자인사에 있어서 오브제의 일반적 의미와 역할을

## 2. 실내디자인과 오브제

### 2.1. 시지각 원리에 의한 오브제(Object)의 지각

오브제란 원래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일상생활, 자연, 또는 예술과 무관한 물건을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이나 느낌과 다른 새로운 상징적 기능의 물체를 이르는 말<sup>3)</sup>이었으나 이제는 건축이나 실내디자인의 분야에서 공간의 장식 또는

2)B. G. Glaser & A. L. Strauss,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Adline Publication, 1967, p.59

3)www.encyber.com

4)Edward Hall, The Hidden Dimension, anchor Books, 1969, pp.66-67

고찰하고자 하였다. 모든 시각 예술은 흔히 구조(structure)와 장식(ornament) 또는 구성과 의장이라는 두 요소로 구별된다.<sup>5)</sup>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구축공간 또한 예외는 아닌데 건축과 공예의 속성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 실내디자인은 때로는 공간의 구축성이 강조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장적 요소가 강조되기도 하며 발전되어 왔다. 의장적 요소가 강조되었던 장식주의 시대 공간에서의 오브제는 일반적으로 조각상이나 벽화 등과 같은 공예 중심의 예술로 표현되어 왔던 반면 일반적으로 구조가 강조되었던 모더니즘 시대의 실내공간 특성은 개별성보다는 전체성이 강조되는 디자인 특성으로 실내공간의 구성요들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 양식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이 시대의 실내공간 오브제는 대부분 장식적인 소품의 역할 정도로 미약하게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 모더니즘에 의한 개별성의 강조는 보다 적극적으로 실내 공간 요소의 오브제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디자인 양식 변화에 따른 실내공간에서의 오브제적 특성을 각각 예술품으로서의 오브제, 구축적 요소로서의 오브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형요소로서의 오브제로 분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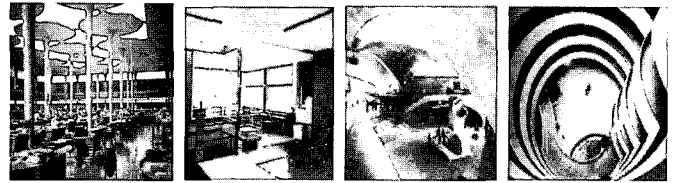


<그림 3> 화이트홀 연회장  
 <그림 4> 티에트로 올림피코  
 <그림 5> 도제 궁  
 <그림 6> 게런티 빌딩

(1) 예술품으로서의 오브제: 장식주의 시대의 대부분 공간들은 공예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공간 전체가 장식을 위한 배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공간 속에서의 오브제들은 대부분 아트웍이나 조각상과 같은 상징적 결정체였으며 예술가들에 의해 주로 제작되었다. <그림 3>의 1619-22년에 완공된 영국 화이트홀의 연회장(Banquet House, Whitehall)<sup>6)</sup>의 경우 르네상스 건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천장에 가득 찬 루벤스의 그림이 공간 최대의 장식품이자 오브제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벽면이나 천장 등과 같은 평면적 건축요소에 장식을 입힘으로 입체감을 형성하는 공간 강조의 방법들은 모더니즘 이전에 흔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림 5>의 도제 궁(Doge's Palace, Venice)은 바로크 시대 장식을 통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평면적인 오브제에서 보다 입체적인 오브제의 모습들은 <그림 4>의 티에트로 올림피코(Teatro Olimpico, Vicenza)나 <그림 6>의 게런티 빌딩(Gauranty

5)W. Tatarkiewicz저, 이용대 역, 여섯 가지 개념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90, p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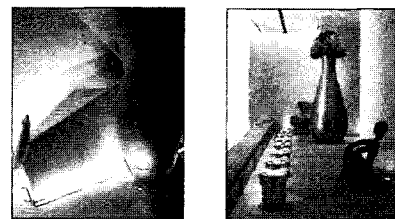
6)J. Pile, A History of Interior Design, Calmann & King LTD, p308



<그림 7> 존슨 왁스 빌딩  
 <그림 8> 슈루더 주택  
 <그림 9> TWA 터미널  
 <그림 10>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Building, New York)을 포함한 수 많은 공간 곳곳에 세워진 조각상들이나 계단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구축적 요소로서의 오브제: 주어진 기능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추구하는 모더니즘 공간에서 오브제는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1908년 아돌프 루스(Adolf Roos)는 '죄악과 장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한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 Rohe)의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Less is More)'라는 개념을 통해서 모더니즘은 철저히 장식을 배제하는 구축공간을 강조하였다. 대부분 건축가들에 의해 구축되었던 이 시대의 오브제는 건축공간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나 리트벨트 등과 같은 건축가들은 건축의 구조체인 기둥이나 벽 그 자체를 공간전체와의 통일된 연속적 맥락 속에서 강조하는 오브제적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초기 모더니즘 건축가인 사린넨(Eero Saarinen)은 <그림 9>와 같이 공간 전체가 하나의 콘크리트 구조체이자 오브제가 되는 TWA 터미널을 설계하였다. 구축 요소로서의 오브제는 다른 모더니즘 건축공간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림 10>의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은 그 독특한 외형만으로 도시맥락에서 하나의 오브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건물 내부의 구축적 요소들 또한 그 자체가 오브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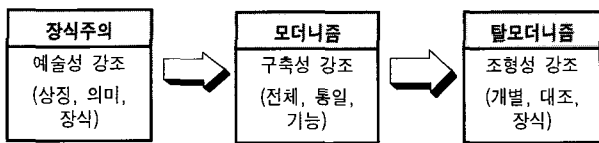


<그림 11> 아사히 빌딩  
 <그림 12> 세인트 마틴즈 레인 호텔

(3) 조형요소로서의 오브제: 모더니즘의 비인간적인 공간에 반발적인 디자인 특성을 펼쳐보였던 탈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전체성을 강조하는 대신 역사주의, 다양성, 상징성 등의 다양한 성향이 강조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sup>7)</sup> 공예적인 장식이나 건축적 맥락 속에서의 강조보다는 오브제 그 자체가 독립적 조형성이 강조되는 디자인들이 많은 실내디자이너들에 의해 선보이게 되었다. 실내공간에서의 조형적 오브제를 강조하는 대표적 작

7)이연숙, 실내디자인 양식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pp.238-239

가 가운데 하나인 필립 스타크는 <그림 11>에 보이는 아사히 빌딩 내부에 거대한 황금색 조형물을 설치하여 실내 공간의 배경과 사물과의 경계가 명확하게 강조되는 차별화를 시도하였으며 세인트 마틴즈 레인 호텔(Saint Martin's Lane Hotel)의 경우 우리에게 친숙한 화병의 이미지를 의외적이고 비일상적인 스케일로 확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오브제들은 실내공간 내에 강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며 기능보다는 장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식주의 시대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나 그 표현 방법과 의미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시대별 오브제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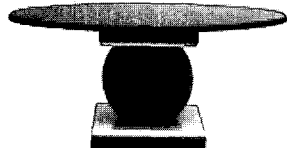
### 3. 퍼트먼 스타일의 구축

#### 3.1. 성장배경

1925년 파리에서 태어난 퍼트먼은 음악과 문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예술적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프랑스 문화 유산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어 있는 풍티네 시토회 수도원(Cistercian Fontenay Abbey)의 일부가 퍼트먼 집안 제지 공장으로 사용되



<그림 14> 풍티네 수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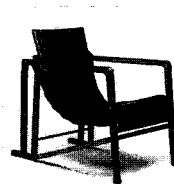


<그림 15> J-M. Frank의 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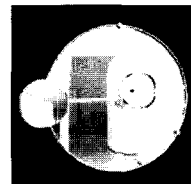
있었기에 퍼트먼은 어린 시절 이 수도원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곤 했는데 극도로 장식성이 배제된 신비로운 공간은 그의 유년 시절에 있어서 공간 개념의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회고되고 있다. 어머니의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자연스럽게 음악을 통해 조화와 구성을 몸으로 익히게 된 퍼트먼은 파리 음악원 콩쿠르에서 1등을 수상하며 음악을 전공하게 된다. 풍티네 수도원과 음악은 이후 절제되고 엄격한 구성과 리듬을 중요시하는 그녀의 디자인 성향에 영향을 끼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음악을 전공한 퍼트먼은 특이하게도 한때 로엘(L'oeil), 엘르(Cahiers de Elle)등에서 기자로도 일을 하였으며 후에는 바우하우스 이념을 기본으로 하는 '크리에이터에 인더스트리엘르(Createurs et Industriels)'에 합류하여 각 중 예술 분야를 접목하여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는 작업들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실내디자인과의 인연을 맺게 된다. 본격적인

실내디자인으로서의 작업은 1978년에 시작하여 뉴욕의 모건스(Morgans) 호텔, 독일의 바세툼(Wasserturm) 호텔, 리츠 칼튼(Ritz Carlton) 호텔, 그리고 일본의 르 락(Le Lac) 호텔 등과 더불어 입생 로랑(Yves Saint Laurent), 까르띠에(Cartier), 발렌시아가(Balenciaga) 등 유명디자이너들의 세계 각국 매장 디자인으로 그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 이후 1997년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무실을 여는 등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한 퍼트먼은 실내디자인계에 공헌한 공로로 1995년에는 프랑스 문화부로부터는 산업디자인 대상(Grand Prix National de la Creation Industrielle), 1999년에는 뉴욕의 부록클린 미술관에서 모더니즘 디자인 공로상(Modernism Design Award for Lifetime Achievement), 등 수 많은 상들을 수상하였고 미국의 시카고 미술대학과 파슨스 디자인 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 수여 받기도 하였다. 정통 실내디자인 교육은 받지 않았던 퍼트먼은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통해 오히려 자유로운 개별성과 함께 조화를 중시하는 질충주의 디자이너(eclectic designer)로 일컬어지기도 한다.<sup>8)</sup>

#### 3.2. 프랑스 모더니즘의 재발견



<그림 16> Eileen Gray의 의자



<그림 17> Eileen Gray의 거울



<그림 18> Mallet-Stevens의 의자

르 꼬르뷔제는 프랑스가 낳은 모더니즘의 대가라 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의 국제적인 명성에 비해 자국에서는 주류 디자이너로서 자리매김을 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아르 누보적 디자인의 선호가 강한 프랑스 특유의 디자인 정서에 모더니즘의 디자인이 크게 선호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9)</sup> 따라서 프랑스는 모더니즘 디자인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였으나 퍼트먼은 프랑스에도 세계적인 모더니즘의 디자인들이 존재함을 입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프랑스 디자이너로서는 드물게 바우하우스와 초기 모더니즘의 계몽적 이념정신에 깊은 영향을 받은 퍼트먼은 보다 아름답고 기능적인 제품들을 대량생산하여 보급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디자이너들인 그레이(Eileen Gray), 페레(Auguste Perret), 말레스티븐스(Robert Mallet-Stevens), 장 마이클 프랭크(Jean-Michael Frank), 샤로(Pierre Chareau) 등은 모두 그녀의

8)Stephane Gerschel, Putman Style, Assouline Publishing NY 2005 p.168

9)J. Pile, A History of Interior Design, Calmann & King LTD, p.308

노력으로 재평가된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특히 시대를 초월한 프랑스 모던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레이와 스티븐스의 제품과 가구들은 퍼트먼이 자신이 설계한 공간에 자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7>의 그레이 거울은 1994년에 리노베이션한 퍼트먼 자신의 아파트는 물론, 1980년의 아노딘과 페올레(Armodin & Fayolle) 아파트나 1985년의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혀져가던 프랑스의 디자이너들과 디자인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으로 그 업적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 3.3. 퍼트먼의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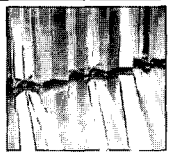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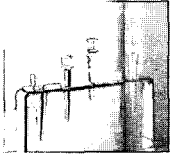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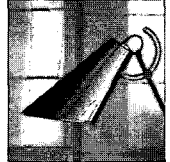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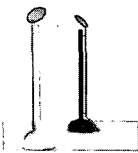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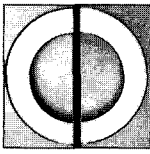
#### (1) 제품 디자인

절충주의적 디자이너라는 명칭에 걸맞게 퍼트먼은 다양한 디자인 영역에 관심을 보여왔고 의상 걸이(coat rack)부터 마네킹에 이르기까지 실내공간에 적합한 각종 소품들을 직접 디자인 하여 왔다. 제품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색이 배제되고 재료의 물성에 충실한 절제된 조형성이 돋보이는 특성을 지닌다.

#### (2) 가구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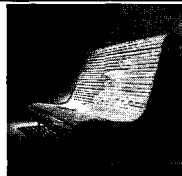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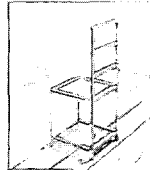

그레이나 스티븐스와 같은 디자이너들의 가구들을 재생산하여 보급시키며 실내디자이너로 발돋움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던 가구 디자인에 대한 퍼트먼의 애정은 각별하다고 하겠다. 대부분 그녀의 공간에서는 그녀가 재생산해낸 디자이너들의 가구를 부각시키고 있으나 때로는 각 공간에 적합한 가구들을 직접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경우 모두 장식성이 배제된 강한 모더니즘 성향을 띠는 공통점이 있다.

<표 1> 제품디자인

작품	이미지	특성
파리의 Azzedine Alaïa Boutique (1985)		거울로 이루어진 스크린으로 공간 전체에 빛을 반사하는 효과를 준다.
Candle Holder (1994)		크리스탈로 만든 촛대로 단순한 조형에 리듬감을 부여하였다.
Compas dans L'oeil (1996)		스텐레스 스틸로 만든 기하학적 구성의 조명 디자인
'Preparation' Andree Putman 향수 (2001)		퍼트먼이 만든 디자이너 캐릭터 향수
Tube et Beret (200)		Karl Lagerfeld를 위해 디자인한 스텐드형 조명
French League 1 Championship Trophy (2003)		선수들의 신체를 승리의 V자와 결합시켜 상징화한 트로피는 매년 우승한 팀의 밴드가 팔 부분에 걸쳐지도록 설계되었다.
Hotel Paticullier Door Handle (2003)		퍼트먼의 절제된 디자인에 자주 사용되는 장식적 요소의 원형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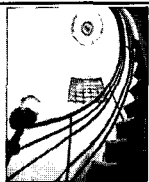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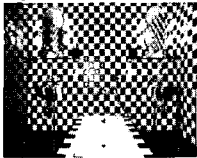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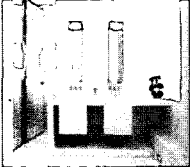


메트로폴리탄 타워(Metropolitan Tower) 등 수 많은 주거 공간에 활용되었다. 또한 1984년 모건스 호텔(Morgans Hotel)이나 1994년의 드파트먼트 호텔(Hotel Du Department) 등에서는 <그림 18>의 스티븐스 의자를 여러 차례 강조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명 '디자인 고고학적 접근(design archaeology)'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그녀의 노력들은 그 동안

<표 2> 가구디자인

작품	이미지	특성
Elephant Bench (1984)		프랑스 조경가구 회사인 Tectona를 위해 디자인된 벤치. 알루미늄 다리에 티크 라스(teak lath)로 이루어졌는데 단순한 디자인과 비례 감각이 돋보인다.
Bathtub (1983)		바닥의 대리석과 같은 느낌을 주고자 욕조 또한 대리석과 같은 질감으로 계획되었다.
Ralph Pucci 소파 (2001)		퍼트먼의 디자인에 자주 나타나는 타원형의 모티브를 입체화시킨 디자인
Seche-Linge chair (2003)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구조로 이루어진 의자 걸 티월 캐디(towel caddy).
Table rond sur Carre (2003)		원래 'Les 3 Suisses'매장을 위해 1980년대에 설계되었던 테이블.

### (3) 실내디자인

<표 3> 실내디자인

작품	이미지	특성
Hunt 주택 계단실 (1980)		계단은 퍼트먼의 디자인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단순한 공간에 극적인 리듬감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활용된다.
뉴욕의 Morgan s Hotel 욕실(1984)		최초의 부티크 호텔로 알려진 모건즈 호텔은 단순한 사각 그리드 패턴을 반복시켜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뉴욕의 Ebel shop (1989)		그리드를 사용한 디자인모티브가 공간 전체에 슬러드와 보이드와의 관계 속에 전개되고 있다.
VIA Exhibition (1990)		필립 스타크의 Ara Stool로 가득 채워진 공간에 벽면에 조명으로 밝혀진 여러 개의 작은 알코브 안에 전시될 가구들을 놓아서 강조하였다.
Isy Brachot Gallery (1991)		절제된 형태, 재료와 색으로 이루어진 갤러리로 퍼트먼의 미니멀한 디자인 성향이 드러나고 있다.
James Brown 아파트 욕실(1992)		색과 장식이 극도로 자제된 직선의 구성만으로 이루어진 욕실로 퍼트먼의 모더니즘적 조형성이 돋보인다.
파리 Lo Sushi (1998)		파리 내부에 설계된 회전 초밥집. 일반적인 쟈 스타일을 탈피하여 프랑스적인 일식당을 설계하였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2003년에 제2의 로 sushi 레스토랑을 탄생시켰다.
프랑스 교육부 회의실 (2003)		장식성이 강한 프랑스 공간에 모던한 가구를 배치하여 퍼트먼 특유의 대조를 통한 가구의 오브제화가 돋보이는 공간이다.

1978년 '에카르트(Ecart)'라는 디자인 회사를 설립한 이후 본격적으로 실내 디자이너의 길을 걷기 시작한 퍼트먼은 프랑스 디자이너로서는 드물게 강한 모더니즘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더니즘이나 국제주의 양식과는 달리 프랑스 디자인 특유의 낭만적 성향 또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디자인은 차별화되고 있다. 즉, 조형성은 기하학의 단순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체 공간과의 구축적 상관관계 속에서가

아닌 독립적 요소로서 절제된 가운데 부드러운 선의 디자인이 돋보인다.

본 장에서는 퍼트먼의 제품, 가구, 그리고 실내디자인에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여 보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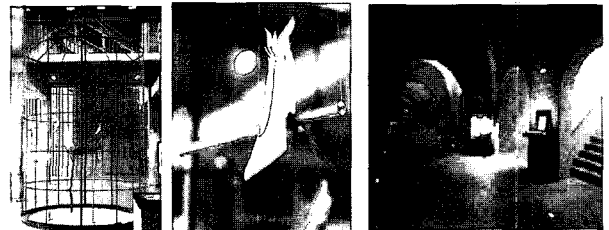
<표 4> 퍼트먼 디자인의 일반적 경향

디자인 요소	특성
공간감	건축공간과 분리된 독립적 개체로서의 조화와 대비
조형성	리듬과 반복을 이용한 단순한 기하학적 구성
재료와 색	인위적인 색의 배제를 통한 재료의 물성 사용

### 4. 퍼트먼 스타일에 나타난 오브제화 특성

음악, 미술, 비평 등 전문 영역에서 활동했던 퍼트먼은 그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실내디자인 뿐만 아니라 그릇, 가구, 조명, 디스플레이 등 디자인 장르를 막론한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디자인들에는 일명 '퍼트먼 스타일 (Putman style)'이라 불리우는 공통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주어진 건축공간의 양식이나 구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녀만의 독자적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그녀가 디자인한 공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강한 오브제적 성향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정리해 다음과 같이 비움의 미학, 디자인 양식의 대비, 기하학적 패턴의 반복, 그리고 조명을 통한 강조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 4.1. 비움의 미학



<그림 19> 찰스 조르당 매장

<그림 20> CAPC 미술관

오브제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퍼트먼 스타일의 첫 번째 특성은 그가 추구하는 비움의 미학에 나타난 조형 요소들의 부각에 있다 하겠다. 퍼트먼이 주장하는 비움의 개념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울 수 있는 여지'를 의미하는 여백을 중시하는 공간감의 추구라고 한다.<sup>10)</sup>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디자인에 스케일을 통한 오브제화를 시도할 경우 대부분 제품 또는 오브제를 주변이나 실제보다 거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퍼트먼은 구성요소의 비일상적인 스케일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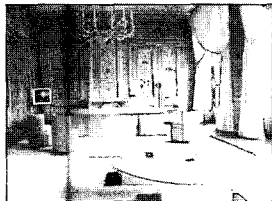
10)Tasma-Anargyros Sophie, Andree Putman, The Overlook Press, NY., 1997, p.12

여주는 대신 보르도에 위치한 현대 조형예술 박물관이나 에벨 전시관에서 보이듯 역으로 비워진 공간의 스케일을 이용한다. 또 다른 예는 찰스 조르단(Charles Jourdan)의 매장 디자인에 사용된 디스플레이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구두를 새의 이미지와 접목시킨 퍼트먼은 구두의 스케일을 거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 있는 세장의 공간감으로 인해 제품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 4.2. 디자인 양식의 대비



<그림 21> CAPC 미술관 사무실



<그림 22> 프랑스 교육부 장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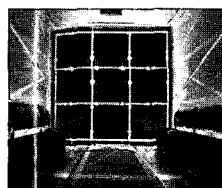
퍼트먼의 디자인이 프랑스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아르 데코 스타일이 강세인 프랑스 디자인에 대비되는 절제된 디자인에 있다. 그러나 본인의 디자인을 과대화하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기존의 공간을 살리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유년시절 퐁티네 수도원에서 받았던 아름다운 건축공간에 대한 기억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현대 조형예술 박물관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 오래된 건축 공간의 특성을 가능하면 그대로 살리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모던한 디자인을 절제된 방식으로 하나의 오브제와 같이 설치하여 과거와 현재가 극적으로 대비된 시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식의 대비는 기존 아르데코 성향의 공간을 새롭게 바꾸기 보다는 모던한 가구 디자인으로 조화와 대비를 동시에 추구하였던 <그림 22>의 프랑스 교육부 실내디자인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다.

#### 4.3. 기하학적 패턴의 반복

퍼트먼 스타일에서 빠질 수 없는 조형적 표현은 기하학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퍼트먼이 1984년과 1996년 두 번 리노베이션 작업을 했던 뉴욕의 모건스 호텔은 그가 세계적 디자이너로 성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프로젝트이자 최초의 부티끄 호텔(boutique hotel)로 알려져 있다. 공간의 구조를 그대로 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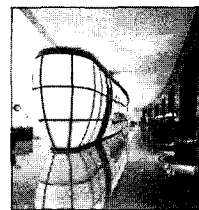
<그림 23> 모건스 호텔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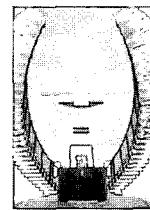
<그림 24> 르 락 호텔

로비 벽면의 그리드는 카펫에서 입체화된 그리드 패턴으로 한층 강조되고 있다. 퍼트먼은 이러한 기하학적 구성을 객실 내부에서는 절제된 단순함으로, 욕실에서는 흑백 타일의 반복적 구성으로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의 절제된 기하학 구성은 일본인들의 정서와도 일맥상통한 면을 보이면서 유럽과 미국에 이어 일본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시키게 된다. <그림 24>에 보이는 르 락(Le Lac) 호텔은 원래 후지 산 옆의 절경을 끼고 설계될 계획이었으나 결국 열악한 입지 조건으로 바뀌게 되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호텔로 1988년에 완공되었다. 외부환경을 차단해야 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퍼트먼은 기하학적 조형성의 강조를 통해 시각적 단조로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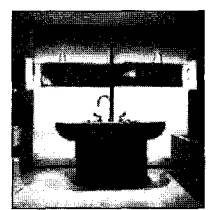
#### 4.4. 조명을 통한 강조



<그림 25> 드골 공항의 셰라톤 호텔



<그림 26> 길도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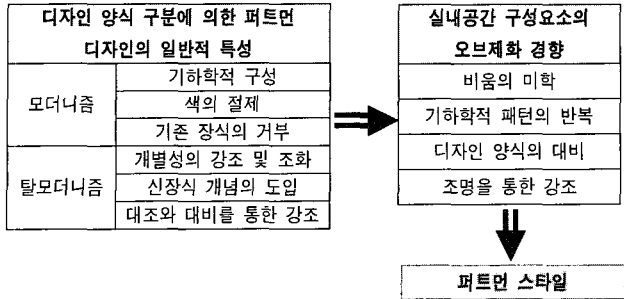
<그림 27> 르 락 호텔

마지막으로 퍼트먼 디자인의 오브제화 경향의 방법으로는 조명을 통한 실내구성 요소의 강조라 할 수 있다. 드골 공항 로비에 설계된 거대한 조명 기구는 각종 설비 기관들을 감추는 기능과 함께 공간에 강한 오브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96년 모나코에 설계한 길도 센터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클라이언트에게 목걸이와 같은 아름다운 계단을 약속했던 퍼트먼은 거대한 공간감은 그대로 살리면서 반투명한 계단을 조명 처리하여 기능적 요소를 강력한 오브제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사물을 조명으로 강조하여 배경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과 달리 일본의 르 락 호텔에서는 욕실의 구성 요소인 세면대를 조명화하기 보다는 사물의 배경이 되는 벽면 전체를 조명으로 사용하여 공간으로부터의 분리를 유도하였다. 또한 호텔의 입구의 사각 면들 사이로 공간 내부에 유입되는 자연광을 사용하거나 패션 부티끄를 위한 스크린 디자인을 거울로 마감하여 채광이 난반사되도록 설계하는 등 조명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요약 및 결론

실내공간 요소의 오브제화는 모든 디자인 양식에 걸쳐 그 표현 방법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으나 매우 중요한 디자인 구성 요소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공간의 양식이나 구

성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 디자인 세계를 펼쳐온 퍼트먼이 디자인사에 미친 영향과 그녀가 사용하는 공간 구성 요소의 오브제화 방법들을 소개하였는데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그림 28> 퍼트먼 스타일 구성도

1. 형태는 기능을 따라야 한다는 모더니즘의 개념은 독일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나 프랑스는 이러한 양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아르누보적 조형성과 심미성을 중시하여 왔다. 이러한 요인으로 프랑스는 세계 패션의 요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대신 건축이나 실내디자인 분야에서 국제적인 디자이너들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퍼트먼은 프랑스인 특유의 심미적 장식주의적 기반위에 초기 모더니즘의 계몽적인 사상과 조형성에 깊은 영향을 받은 디자인들로 유럽 뿐만 아니라 기능을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디자인을 보급해야 한다는 계몽적인 생각을 지닌 퍼트먼은 실내디자이너 이전에 디자인 개발자로서 그레이, 스티븐이나 페레와 같이 프랑스 모더니즘의 역량을 재발견하여 프랑스의 디자인을 국제화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2. 퍼트먼의 디자인 성향 가운데 가장 큰 특성을 꼽는다면 그 표현 양식은 모던한 기하학적 구성이면서 공간개념은 건축 요소를 배경으로 사용하는 개별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그녀를 모더니즘의 디자이너로 한편에서는 탈 모더니즘의 디자이너로 일컫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 방식과 공간 개념이 서로 다른 그녀를 파일(Pile)은 별도로 개별주의적 양식으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어떠한 양식에 크게 치우치지 않은 채 절충적 방법의 강조로 ‘퍼트먼 스타일’이라는 본인만의 디자인 양식을 구축하였다.

3. 이렇게 본인만의 디자인 영역을 구축한 퍼트먼의 실내디자인 표현 방법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실내 공간 구성 요소의 오브제적 성향이라 보았다. 따라서 퍼트먼은 흔히 필립 스타크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그와는 또 다른 디자인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면 비율의 미학, 디자인 양식의 대비, 기하학적 패턴의 반복, 그리고 조명을 통한 강조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건축공간과의 연계성과 구축적 표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퍼트먼과 같이 실내 구성 요소의 독자적인 표현방법 또한 의미있는 디자인 작업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Glaser B. G. & Strauss A. L.,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Adline Publication, IL., 1967
2. Gerschel Stephane, Putman Style, Assouline Publishing NY. 2005
3. Hall Edward, The Hidden Dimension, Anchor Books, 1969
4. Pile John, A History of Interior Design, Calmann & King, 2000
5. Tasma-Anargyros Sophie, Andree Putman, The Overlook Press, NY., 1997
6. Tatariewicz W. 저, 이용대 역, 여섯 가지 개념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98,
7. 이연숙, 실내디자인 양식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8. www.encyber.com

<접수 : 2005. 12. 31>